

# 지식분류에 대한 동서양의 비교

- 베이컨의 분류와 사고전서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Bacon's Knowledge Classification and SAGOJEONSEO Classification

이 명 규(Myoung-Gyu Lee)\*

### 목 차

- |                   |              |
|-------------------|--------------|
| 1. 서론             | 3. 베이컨 지식분류  |
| 2. 지식분류           | 4. 사고전서총목 분류 |
| 2.1 지식, 학문과 분류 개념 | 5. 지식분류의 비교  |
| 2.2 지식의 분류        | 6. 결론        |
| 2.3 지식분류 체계의 역사   |              |

### 초 록

지식 분류는 그 대상, 목적, 시대, 지역,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지식 체계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분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식의 표현 방식이 다르고 지식표현의 배열이 우선 순위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시대나 지역에 서 내용의 류구분은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식분류나 문헌분류는 그 시대의 사회적 구조를 반영하는 형태를 취하며 그 시대의 사회철학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지식 체계의 기본 골격은 고대에 형성된 후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학문의 발전은 다른 학문 분야를 형성시켜 전체 학문 체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발전은 계속해서 일어나 많은 새로운 분야의 지식이 나타날 것이며 지식분류의 한자리를 차지 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분류, 지식분류, 문헌분류

### ABSTRACT

A knowledge classification is based on different types of knowledge system, which depends on classified objects, purposes, times, regions, and scholars. The classified contents, however, do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any times or regions, 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representation methods and in arrangement priority of representing knowledge. Knowledge or library classification reflects the structure of a contemporary society, and is decided by social philosophy of the time. The basic structure of knowledge system in the past was formed in the ancient time, and since then, it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In the course of this process, the development of studies has generated other branches of studies,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changing the whole system of studies. This kind of development will continue to occur and many new branches of information will appear, resulting in taking each category of knowledge classification.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  
접수일자 2000년 12월 4일

## 1. 서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은 최소한 그 시대, 그 사회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지식을 더하여 보다 많은 것을 배우는 것과 병행해서 여러 가지 기록 재료를 사용하여 그들의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여 정리, 보관하였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요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가 인류와 함께 생산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인류는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소멸시키지 않고 정리 보관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문헌정보학의 근간이 되는 분류와 목록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식과 정보는 자체의 구조적 연관성이라는 사고 과정을 거쳐서 그 범위를 정해야만 한다. 즉 어떤 문제로 구분하여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과 분류의 원칙은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문헌정보학의 경우 그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분류는 그 대상, 목적 그리고 관점에 따라 각기 체계가 다르며 특히 시대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또한 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지식 체계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것을 조감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동서양의 문헌분류의 원리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지식분

류 중에서 대표적인 지식분류를 고찰하고, 동서양의 지식분류간에는 상호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지식 분류

### 2.1 지식, 학문과 분류 개념

지식은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또는 실천을 통해서 얻은 명확한 인식이나 견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 철학에서는 인식에 의하여 얻어진 성과, 사물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적, 경험적 인식을 말하며, 객관적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를 말한다. Bell은 지식을 '어떤 체계적인 형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합리적인 판단, 또는 실험적인 결과로 제시되는 사실, 관념의 조직화된 진술'<sup>1)</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Kemp가 설명하는 인식론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지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아는 행위'는 그 앞이 이루어지는 네 개의 원천을 가지는데 이들은 외계의 지각, 감지, 기억, 추리력이다. 외계적 지각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획득하는 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원천으로 간주되며, 감지는 우리의 내면적 존재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종종 자의식, 내적 의식세계로 일컬어지고 있다. 기억은 과거에 대한 지식의 원천이며 추리력은 합리적 지식 혹은 논리의 원천으로

1) Daniel 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Inc., 1973. p.175.

보고 있다.<sup>2)</sup>

그리고, 학문은 일정한 방침 원리에 따라 지식을 통일한 지식의 체계를 말한다. 지식을 통일한 지식체계는 분산된 개개의 지식이 아니며 일정한 원리에 입각하여 인식목표를 설정하고 그 원리에 따라 낱말의 지식을 조직 망라한 체계이다. 그러므로 학문도 넓은 의미에서 지식의 일종이라 하겠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할 때에는 단편적인 지식 즉, 학문도 포함된다고 하겠다.<sup>3)</sup>

이와 같이, 학문과 지식이라는 용어를 엄밀히 살펴보면 차이점은 있지만 상호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철학자들이 분류한 각종 문헌에서 이들을 구분 없이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이 두 용어간의 명확한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분류란 유사한 실체를 함께 모으고 그렇지 않는 것을 분리시키는 것이다.<sup>4)</sup> 그리고 그 실체의 특성이 실체 사이의 유사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분류란 “사물이나 현상, 개념 등을 유사한 것은 모으고, 상이한 것은 구분하여 체계화하는 것”<sup>5)</sup>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철학대사전에서는 분류란 “개념의 외연을 철저히 구분함으로써 완전한 체계를 조직하는 것, 즉 상대적으로 최고의 유개념으로부터 최저

의 종개념에 이르기까지 분석하는 것”<sup>6)</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필모 교수는 분류란 “어떤 대상(유개념)을 어떤 성격이나 특징을 기준으로 점차로 분석하여 최저의 종개념으로 조직화하는 것”<sup>7)</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분류의 일반적인 어의는 ‘어떤 원리로 유개념을 점차 분석하여 종개념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뜻함을 알 수 있다.

## 2.2 지식의 분류

지식의 분류는 지식의 기본 단위인 개념의 유사성에 따라 지식을 분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개념의 대상이 되는 지식에 대한 분류는 그 분석의 기준이 되는 특징에 따라 종개념에서의 유별화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식을 분류하는 것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8)</sup> 첫째는 과학적 지식의 분류로서 특정한 과학 분야에서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적 분류는 개개의 물체들을 집단화하여 단계적으로 보다 큰 집단을 구축하여 가는 귀납적 분류 기법을 사용한다.

둘째는 지식의 철학적 분류다. 지난 수 천년간 철학자들은 개념의 분류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들은 개념들의 상호 관계에 따라 개

2) D. A. Kemp, The Nature of Knowledge: An Introduction for Libraries. London, Clive Bingley, 1976. pp.36-37.

3) 이흥구, 學界論 考察(序說). 도서관, Vol.41, No.1(1986), p.55.

4) Brian Buchanan, Theory of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Clive Bingley, 1979. p.9.

5)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p.168.

6) 세계철학대사전. 대전, 고려출판사, 1999. p.440.

7) 정필모, 文獻分類論. 서울, 九美貿易出版部, 1991. p.15.

8) 정영미, 지식구조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p.38.

념을 집단화하고 그들간의 순서를 정하고자 하였다. 고대나 중세의 철학은 현재의 이해와는 달리 과학이나 지식 전반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철학자들에 의한 개념의 분류를 일반적으로 '지식 분류'라고 말한다. 그러나 철학자들의 관심은 다분히 이론적이며 사색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실용성이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도서관 지식의 분류이다. 도서관 지식의 분류는 철학적 지식의 분류에 비해 지식을 담고 있는 문헌들에 대한 분류이며 일반적으로 '도서관 분류' 또는 '문헌 분류'라고 부르고 있다. 도서관 분류는 지식의 효과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구체적이며 특히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철학적인 지식 분류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하는 문헌분류는 전체에서 출발하여 계층의 아래를 형성해 가는 연역적 분류기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지식 분류는 사물 또는 어떤 개념의 상호간의 관계를 발견하는 수단이며, 학문의 구분을 규명하기 위한 기준에 분류되고, 문헌분류는 정보자료의 이용에 대비하여 문헌을 일정한 질서, 주로 내용의 구분 원리로 서가에 배열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그러나, 지식분류와 문헌분류는 연역적 분류기법을 사용하듯이, 문헌분류의 대상인 지식과 정보의 내용에 대한 분류 및 배열의 근거는 지식 분류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고 및 추리 활동은 그것이 일반적 명칭이나 관념을 다루고 있는 한 한 분류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분류와 문헌분류는 동질성을 지니는 조기성을 갖는 관계로 볼 수 있다.

## 2.3 지식 분류체계의 역사

지식의 분류에서 무엇을 원리로 해서 지식을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대나 지역이 서로 다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동서양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당한 변천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것은 분류원리를 정하는 방법 여하에 따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정한 지식 분류체계는 그 분류체계가 만들어진 시대와 문화권의 지식 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상당수의 다른 지식 분류체계가 고안되었음을 볼 수 있다.

현대의 학문은 서양의 학문 영향을 받아서 거의 전세계가 이의 체계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3.1 서양의 지식분류

서양의 지식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Ranganathan은 저서인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2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중요한 분류체계들에 관해 언급하면서 모두 116개의 분류체계가 Richardson의 Classific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의 부록에 열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Richardson은 이 저서에서 분류체계들을 이론적 분류와 실용적 분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론적 분류란 철학자들에 의한 지식 분류를 의미하며 Plato(BC 428 347)의 체계에서 1910년의 Bartel의 체계에 이르기까지의 분류체계들을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반면에 실용적 분류는 문헌 분류를 의미한다.<sup>9)</sup>

Kumar는 역사적인 지식 분류체계를 크게

두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sup>10)</sup>

(1) 비순수-응용순 체계: 이 체계는 응용 분야를 이 분야가 기초하고 있는 분야 다음에 놓으려는 의도가 없는 체계로서 거의가 19세기 이전에 나타났다. 이들은 대개 주관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집단화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으며, 이분법이나 삼분법을 사용한 분류체제로 분석되고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주요한 체계와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인도의 베다(Vedic) 분류 (사회 중심적)
- 그리스 분류 (실용성 중심적)
- 중세 유럽의 학문 분류 (대학 중심적)
- 베이컨(Bacon) 분류(1605) (심리학 중심적)
- 칸트(Kant) 분류(1781) (원초적 인간본능에 기반함)
- 헤겔(Hegel) 분류(1812) (그리스 삼원분류에 영향받음)

(2) 순수-응용순 체계: 이 체계는 주제의 연속적 의존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각 주제는 앞에 오는 주제에 의존한다. 또한 이 체계는 응용분야를 이 분야의 기초가 된 순수 분야 다음에 놓고자 하였으며 Hobbes의 체계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19세기에 나타났다. 이 부류에 속하는 주요한 체계와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홉스(Hobbes) 분류(1651)
- 콩트(Comte) 분류(1830) (연속적 분류)
- 앙페르(Ampere) 분류(1834-1843) (연속적 분류)
- 스펜서(Spencer) 분류(1864) (연속적 분류)

위와는 달리 Matthews는 지식 분류체계를 시대별로 집단화하여 나타내고 있다.<sup>11)</sup> 다음의 <표 1>은 Matthews의 주요 지식분류 체계이다.

<표 1> Matthews의 주요 지식분류체계

시 대	체 계	구 분
B. C. 384-322 6세기	Aristotle 3학 4과	실용, 생산, 이론철학 기술 - 문법, 수사학, 변증법 수학 -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음악
12세기	Hugo	이론, 실용, 기계학
16세기	Gesner	철학-예술, 과학
17세기	Bacon	역사, 시학, 이성(철학)
18세기	D'alembert, Diderot	역사, 철학, 시학
19세기	Brunet Comte Spencer	신학, 법률학, 역사, 철학, 문학 추상과학, 구체과학 추상과학, 추상-구체과학, 구체과학

9) 정영미, 지식구조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p.42.

10) Krishan Kumar,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revised ed.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1981, p.360.

11) G. O. Matthews, The influence of Ranganathan on faceted classification, Cleveland,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80, p.15.

이와 같이 Kumar와 Matthews의 지식분류사의 전개는 각각 그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지식의 분류를 연대순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다. 초기의 지식분류 원리에 대한 것은 주로 물질과 정신, 가치의식의 유무, 보편 과학과 개성 기술과학, 사실과 이념, 설명과 이해 등 지식을 순수 이론에 국한시켰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난 세기에 보지 못하던 학문 분야가 새로 생겨남에 따라, 학문의 순수성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어 순수, 응용 등 다학문적 연구가 나타나며 따라서 지식 분류의 영역이 더욱 넓혀지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 2.3.2 동양의 지식분류

우선, 동양의 고대, 특히 중국에서는 분류에 대한 개념을 서지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있다. 따라서 분류를 이해하기 전에 서지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우준 교수는 Bibliography의 개념에 대해 동양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Bibliography의 의미는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도서의 형질적인 면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용만을 독립시켜 연구해야 한다"<sup>12)</sup>는 것이다. 후자인 내용만을 독립시켜 연구하는 것은 주제가 지니고 있는 도서의 내용 즉 저자가 전개하려고 하는 이론의 이해면으로 볼 때 열거문제(enumerative problems)가 제기되며 이것을 일반적으로

intellectual bibliography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자료를 조사하고 분류해서 목록하기까지의 작업을 뜻하고 있다.<sup>13)</sup> 다시 말해서 이는 서양의 지식 분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중국재래의 목록서가 바로 서양에서의 학문의 성격을 분류해 놓은 분류학도 포함되는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종합서였다.

중국에서의 지식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국 고대에는 전책이 많지 않았으므로 분류의 상황도 상세하지 못하나 문헌분류의 기원은 공자로부터 비롯된다고 한다.<sup>14)</sup> 이유는 중국의 요명 달에 의하면 "공자는 고서 중에서 특히 육예를 채택하여 가르쳤으며, 육예를 각각 분류해 놓았다. 그의 뜻은 비록 고서분류가 아니었고, 고서가 육예로 개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공자 문화의 교과서가 본래 육문으로 엄연히 분류되었으니 이를 일컬어 도서분류의 시초라 아니할 수 없다"<sup>15)</sup>고 한다.

심우준교수는 '서지학의 제문제'라는 저서에서 중국의 역사문헌에 나타난 목록학서의 편성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이는 위의 설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양의 지식분류를 의미하며 중국의 한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분류체계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sup>16)</sup> 다음의 <표 2>는 역사문헌에 나타난 목록학서 중에서 분류의 성격을 내포한 도서의 편성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장예홍은 중국의 전통적 분류법은 크게

12) 심우준, 書誌學의 諸問題. 서울, 혜진서관, 1995. p. 11.

13) Ibid. p. 14.

14) 정필모, 文獻分類論. 서울, 九美貿易出版部, 1991. p. 31.

15)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中華民國, 商務印書館, 1938. p. 67.

16) 심우준, 書誌學의 諸問題. 서울, 혜진서관, 1995. p. 22.

칠락과 사부의 두체제로 되어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칠락에서부터 사부까지의 분합상황을 제시하고 있다.<sup>17)</sup>

이른바 유희가 창시한 칠락은 '한서 예문지'에 보이는데 즉, 집략·육예략·제자략·시부략·병서략·술수략·방기략을 말한다. 그 가운데 술수는 천문·역산·점복 등을 가리키며 방기는 의방·의기를 가리킨다. 제자를 병서·술수·방기로 구분한 것은, 제자는 이론을 논하되 병서 등은 구체적인 기술에 편중하기 때문이다. 곧 '주역' 계사에 "형이상자를 도라 하고 형이하자를 기라 한다"고 한 것에 근거한다. 제자는 "사실을 떠나서 이치를 말하나"<sup>18)</sup> 병서 등은 "사실"에 대하여 논하기 때문이다.

유희의 뒤에 문헌분류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수서 경적지'에 따르면 양무제의 보통 연간(520-526)에 처사 원효저가 칠락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첫째는 경전록으로 육예를 기록하였고 둘째는 기전록으로 사전을 기록하였다. 셋째는 자병록으로 자서와 병서를 기록하였고 넷째는 문집록으로 시부를 기록하였다. 다섯째는 기술록으로 술수를 기록하였고 여섯째는 불록, 일곱째는 도록이었다. 이것을 칠락과 비교하면 합병도 있고 분출과 확충도 있다. 그 뒤 '수서 경적지'의 분류법은 사부 분류법으로 확립되어 청대에 이르기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칠락', '칠록', '수서 경적지'의 분합 상황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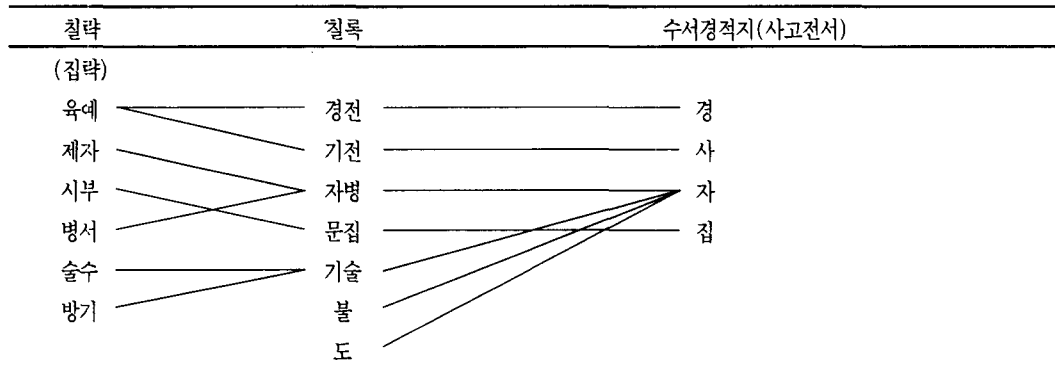
<표 2> 歷史文獻에 나타난 目錄學書의 編成

時期	著者/書名	分類
漢	劉向/別錄·劉歆/七略 張良/內府所藏兵書 壯子/天下篇·荀子/非十二 班固/漢書藝文志	條其篇目, 撮其旨意  劉向·劉歆이 模倣 書目뒤에 小序, 每略뒤에 總序, 卷頭に 大序, 七略을 增刪
東漢	荀勗/中經新簿	甲乙丙丁 四部分類
晉	李充/秘書閣藏書目	乙丙을 轉倒分類
晉末	邱淵/新集	目은 있어도 錄은 없음. 書名만 記入, 七略法繼承
東晉	王儉/七志·院孝緒/七錄	中經新簿 模倣
隋	許善心/七林	
唐初	魏徵/隋書	道佛經 添付, 漢志模倣
五代	院元, 歐陽修/崇文目錄	每書下에 敘錄·序錄, 四部目錄踏襲
元	馬端臨/文獻通考經籍考	
明	文淵閣書目 澹生堂家藏書	千字文順序列 因益通互法創案
清	晁公武/郡齋讀書志 四庫全書總目	崇文總目增刪改并, 四部分類 隋書經籍志 以下 目錄參酌, 編目은 朝代 앞세움

17) 蔣禮鴻 著; 沈慶吳 譯, 目錄學과 궁구서, 서울, 이회문화사, 1991, p.33.

18) 章學誠, 文史通義, 易教 上

〈표 3〉 칠락, 칠록, 사분법의 분합 상황



이상과 같이 동서양의 지식분류체계의 시작과 시대별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동양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문헌 분류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헌분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동서양의 지식분류 중에서 서양의 베이컨 분류와 동양의 사고전서분류를 상호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 3. 베이컨(Francis Bacon) 지식 분류

고대에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서로 분리된 채 별도로 존재해 오던 근대 과학의 세가지 방법적 특성들-(경험적·실험적), (수학적), (기계적)-이 과학혁명기에 합쳐지게 되어, 실험이 과학에 받아들여 지는 시기가 15, 16세기이다. 이 시기에 기술자, 장인 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자연연구가 왕성해지고, 이에 따라 실제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들의 지식

과 자연관을 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때 베이컨이 이를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주장했다.<sup>19)</sup> 이 글에서는 현재 대표적인 문헌분류인 DDC와 UDC를 포함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식 분류체계에 영향을 미친 베이컨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베이컨의 학문분류는 오늘날의 학문 분류나 문헌 분류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분류표이다. 그가 1605년에 발표한 '학문의 진보', 제2권에는 광범위한 학문을 분류해서 독자적 해설을 가한 것이다. 이것은 Gesner의 구상과 같은 궤도를 하고 있으며 무엇이 학문의 진보인가에 대해서는 발전사적으로 재평가를 가하고 내용은 더욱 깊이를 더하고 있다. 베이컨은 과거의 인류지식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새로운 발견인가를 명백히 하고자 노력했다. 그 정리에 의해서 무엇이 미개척 영역인가를 확인하고 장래 연구과제로 발견하려 했다.

그의 철학의 모든 근거는 실제적이다. 즉 과학적인 발전과 발명을 통하여 인류에게 자연의

19) 소광희 등저, 현대의 학문체계, 서울, 민음사, 1994, pp.138-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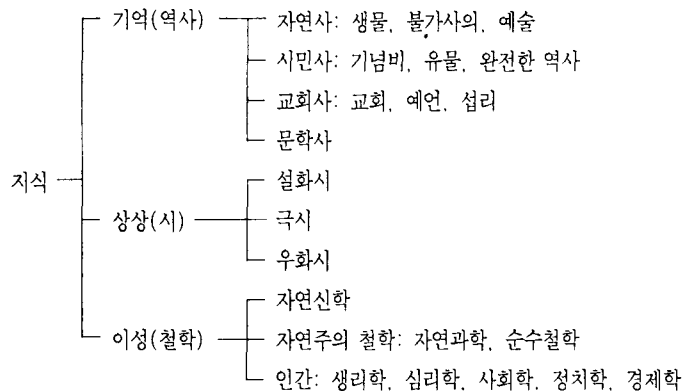
힘에 대한 지배권을 준다는 것이다. 정신 능력 중심으로 생각되는 그의 지식분류법은 아이디어의 총체를 연속적으로 기억으로부터 발현되는 역사, 상상으로부터 발현되는 시학, 그리고 이성으로부터 발현되는 철학으로 3구분했다. 역사는 기억에서 나온 주제들을 포함하며 자연역사(Natural history)와 문명역사(Civil history)로 나누어지며, 시는 상상에서 나온 주제들을 포함하며, 설화시(Narrative poetry), 극시(Dramatic poetry), 우화시(Parabolic poetry)로 구분되고, 철학은 추론에서 나온 주제들을 포함하여 크게 자연신학, 자연주의 철학, 인간으로 구분된다. 이 분류에서 특별한 점은 특히 인간분야가 상세히 되어 있다. 인간의 자각이 자연을 발견시키고 신학을 확립하게 한 것이다.

학문이 지식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는 한 정신 능력에 의한 분류는 정당하다. 그리고 정신 능력은 사람의 주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식은 다만 주관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객관성을 가진다. 지식의 집성인 학문은 객관적인 존재이

다. 그러므로 정신능력에 의한다고 생각된 분류는 실은 대상의 분류이다. 베이컨의 분류도 제1차는 정신능력에 의한 것이나 제2차적으로는 학문의 대상을 분류원리로 하고 있다. 베이컨 지식 분류법은 오랫동안 이후의 분류법에 영향을 미쳤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분류법의 유용성에 종지부를 고하게 할만큼 베이컨의 지식분류법은 그 이후의 지식 분류사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문헌분류의 모태가 되는 주요한 분류법으로 그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sup>20)</sup>

결론적으로 베이컨의 지식분류에서 1차 구분의 원리는 정신능력을 기억, 상상, 이성으로 하고 2차 구분의 원리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이데이를 역사, 시학, 철학으로 3구분 했다. 과학과 철학을 포함하여 과학의 특질을 비교적 올바르게 인정한 분류로서 19세기 초까지 널리 채용되었고, Harris와 Dewey의 분류에 영향을 끼쳤다.<sup>21)</sup>

<표 4> 베이컨의 지식분류 체계



20) G.W. Kitchin ed., The Advancement of Learning. London, J.M.Dent & Sons Ltd., 1915. p.x-xii  
 21) 정필모, 文獻分類論, 서울, 九美貿易出版部, 1991. p.26.

#### 4. 사고전서총목 분류

四庫全書는 청나라 건륭 황제때 10여 년간의 작업 끝에 완성한 것으로 사분법의 완성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원명칭은 四庫全書總目으로 편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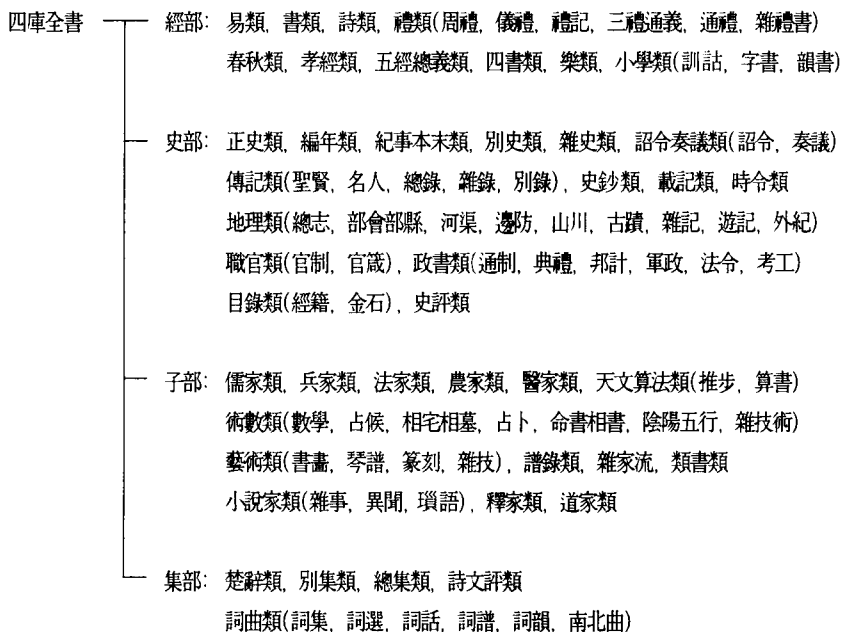
사고전서총목제요는 모두 2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목록으로 4부분류법에 의거 경·사·자·집을 강으로 삼았고 매부는 경부 10류, 사부 15류, 자부 14류, 집부 5류 등 모두 44류로 나누고 류 아래에는 또 각각 자목으로 나누었는데, 다음의 <표 5>와 같다.

경부에는 성인의 재량을 받아서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천하의 공리가 될 만한 저술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사부는 사전에 관한 것과 사학서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 자부에는 일가견의 철리와 주장을 논한 제자의 저술과 잡다한 군서

가 집중되어 있다. 자부총서에 의하면 육경 이외의 입설은 모두 자서라고 했다. 그리고 집부는 무릇 문학에 관한 저술, 예컨대 고문, 시부, 사곡 등은 모두 집부에 속한다.

이와 같이 사부분류법은 '중경신부'에 나타나는 것처럼 초기에는 모든 문헌을 사대구분하고 다음으로 수서경적지에서는 제2차적으로 이 사부를 다시 각각 류별로 구분했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사고전서에 이르러서는 이들 각 류를 제3차적으로 세분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사부분류법도 학문의 발전이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모든 문헌을 3단계에 걸쳐 류·강·목으로 분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표 5> 四庫全書의 分類 體系



### 5. 지식 분류의 비교

지식을 분류하는 것에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지식의 철학적인 분류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문헌분류는 전체에서 출발하여 계층의 아래를 형성해 가는 연역적 분류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사상과 개념 등의 지식표현은 결국 문헌 분류의 대상이 되는 여러 정보 자료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지식 분류와 문헌분류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서양에서의 지식분류의

하나인 베이컨의 지식분류와 동양에서의 문헌분류의 하나인 사고전서총목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베이컨의 분류는 제1차는 정신능력에 의한 것이나 제2차에는 학문의 대상을 분류원리로 하고 있다. 정신 능력은 사람의 주관에 불과하나, 지식을 분류한 2차적인 것은 주관의 작용이 아니고 객관성을 지니는 것이다.

베이컨의 분류 중에서 기억(memory)으로부터 표출되는 역사부분은 사고전서에서는 중국의 사전에 관한 것과 사학서 일체를 포함하고 있는 史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베이컨의 역사에 주로 나타나는 주요 주제는 지리와 역사이

<표 6> Bacon과 사고전서의 분류 비교

구분	Bacon's outline	사고전서 outline
Mental	History	史部
Faculties	자연사(natural, geography)	時令類, 地理類
Memory	시민사 정치사 인류사	正史類, 載記類 傳記類, 職官類, 政書類
Imagination	Poesy	集部
	설화시(Narrative)	楚辭類
	극시(Dramatic)	詞曲類
	우화시(Parabolic)	
Reason	Philosophy	經部, 子部
	신학	(子部 釋家類)
	자연신학	易類
	자연과학	書類, (子部 天文算法類, 術數類)
	순수철학	禮類, (子部 儒家, 雜家, 道家類)
	인류론	孝經類, 四書類
	심리학	小學類, (子部 術數類)
	사회학	
	정치학	春秋類, (子部 兵家, 法家類)
	경제학	(子部 農家類)

다.<sup>22)</sup> 역시, 사고전서의 史部에서도 베이컨의 지리분류에 해당되는 분류는 산천의 형세, 군현의 연혁 및 각 지방의 상황을 모아놓은 지리류와 기후 변동사항을 기록한 시령류가 여기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베이컨의 역사 분류에서 정치사에 있어서도, 사고전서의 사부에서는 중국의 역사를 기술한 정사류, 편년류, 기사본말류, 별사류, 재기류 등이 이에 해당되며, 베이컨의 분류에서 인류사(Biography)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고 전서에서는 史部の 전기류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상상(imagination)으로부터 표출되는 시 분류는 사고전서에서는 시문에 관한 비평서와 곡의 원리연구서를 모아 놓은 集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베이컨 분류에서 시에 해당되는 주요주제는 예술과 문학 등이 포함된다.<sup>23)</sup> 사고전서의 집부에서도 무릇 문학에 대한 저술, 예컨대 고문, 시부, 사곡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베이컨의 분류에서 이성(reason)으로부터 표출된 철학에는 역사와 시를 제외한 나머지의 주제들을 포함하는데<sup>24)</sup> 물리학, 형이상학, 인류학, 심리학, 논리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전반적인 사회과학과 순수자연과학의 일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고전서의 사분법에서는 천하의 공리가 될만한 저술(지식)을 모아 놓은 經部와 일가견의 철리와 주장을 논한 제자의 저술을 모아 놓은 子部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더 세부적으로 하위분류하여 보면, 베이컨의 철학은 다시 신학, 자연신학, 인류론

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자연신학이란 신의 계시에 의하지 않은 인간 이성에 의거한 신학이론이라고 보았을 때, 사고전서에서는 성인의 재량을 받아서 모범을 보이는 많은 여러 경, 예를 들면 經部의 역, 예, 효경, 사서 및 子部의 유가, 법가, 도가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서양(그리스)에서 이론 철학의 개념에 내포되고 있는 주제로는 논리, 형이상학, 수학, 물리학 등이고 실제철학에는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등이다. 사고전서에 대비하여 보면, 논리나 형이상학은 제자백가들의 서가 그렇고, 수학이나 물리학은 子部의 천문산법류나 술수류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정치학은 子部의 유가, 병가, 법가류 등이며, 경제학은 子部의 농가류의 일부에 상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베이컨의 지식분류와 문헌분류로 볼 수 있는 사고전서의 사부분류를 비교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동서양의 지식 분류는 해당 분류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 사회의 정치적·사회적·학문적 구조를 총체적으로 모두 반영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컨은 그 당시에 존재하는 이데아의 총체(universe of ideas)를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로 새로운 지식분류를 만들어 냈다. 사고전서 또한 중국 청나라 때, 전국적으로 선정하고 채진한 도서를 목록 편찬한 것이다.

당대의 철학이 베이컨이 지식의 총체를 철학자들의 개념과 개념들의 상호 관계에 따라 개념

22) Krishan Kumar,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revised ed.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1981. p.362.

23) loc. cit.

24) loc. cit.

을 집단화하여 제시한 지식의 철학적 분류나 지식의 효과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전국의 문헌을 문헌분류한 중국의 사부분류는 류별화 시킨 주제는 단지 배열순위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류별화된 주제 속에서 다루어진 강, 목의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루어지는 주제의 류강목의 내용지식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동서양의 지식을 상호 비교하거나 분류에서의 공통점을 찾는 일은 쓸모 없는 것처럼 여겨왔으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DDC를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와 같은 유사한 지식분류가 이미 오래 전부터 동서양의 유사한 사상적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6. 결론

무엇을 원리로 해서 지식을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상에서 살펴보다시피 한 모습을 띠고 있지도 않고, 그 대상, 목적, 그리고 관점에 따라 각기 체계가 다르며, 특히 시대에 따라 상이하며, 또한 철학자나 동서양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지식 체계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것을 조감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새로운 연구가 다양화해질수록, 새로운 지식 영역이 등장할수록, 기존의 분류는 불만족스러워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지식분류 전체의 조감도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주제적인 논의가 아니라도 그 동

안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지식체계에 관한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기 위해 살펴야 할 범위는 동서고금을 통해 거의 전 지식사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분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식의 표현 방식이 다르고 지식표현의 배열이 우선 순위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시대나 지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동서를 막론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지식 분류와 동양의 문헌분류를 비교하는 것은 무모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시대의 지식이 물리적 형태인 자료매체로 표현된 문헌이라고 보면, 결코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지식분류나 문헌분류는 그 시대의 사회적 구조를 반영하는 형태를 취하며 그 시대의 사회철학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지식 체계의 기본 골격은 고대에 형성된 후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과학의 발전은 다른 학문 분야를 형성시켜 전체 학문 체계의 변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발전은 계속해서 일어나 많은 새로운 분야의 지식이 나타날 것이며 지식 분류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문헌정보학의 분류의 사상적 배경으로서의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늘날,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로 지식 분류를 포함한 일체의 학문적 분류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서양의 지식사를 보여주면서 분류는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사고의 기초가 된다. 만약 미래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분류를 찾을 수 없다면 이는 지식의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다.

## 참고 및 인용 문헌

- 소광희 등저. 1994. 현대의 학문체계. 서울: 민음사.
- 심우준. 1995. 書誌學의 諸問題. 서울: 혜진서관.
- 장예홍. 1992. 목록학과 공구서. 심경호 역, 서울: 이회문화사.
- 정영미. 1997. 지식구조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정필모. 1991. 文獻分類論. 서울: 九美貿易出版部.
- Buchanan, Brian. 1979. Theory of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Clive Bingley.
- Dant, Tim. 1991. Knowledge, ideology and discourse: a sociological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 Galambos, James A. & Abelson, Robert P. & Black John B. 1986. Knowledge Structure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emp, D. A. 1976. The Nature of Knowledge: An Introduction for Libraries. London: Clive Bingley.
- Kumar, Krishan. 1981.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revised ed.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